

의안번호	제 67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0월24일 (제 335 회)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교육위원회위원장
제출연월일	2014년 10월 22일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4년 10월22일

제 안 자: 교육위원회위원장

□ 주 문

- 지난 8월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뒤, 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들이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재단이사진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운영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학내 사태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 바, 이에 대해 김윤배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줄 것과
-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권 보장과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파행을 중단하고 학내사태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통하여 학교운영 정상화를 촉구함.

□ 제안이유

- 청주대학교는 2014년 8월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뒤, 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등이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 등의 퇴진을 통한 학교운영 쇄신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교수 및 교직원의 집회가 장기화 되고 있는 바,
- 이러한 현 사태로 인하여 청주대학교는 약 2달 쯤 정상적인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적지 않은

희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청주대학교의 조속한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를 건의하는 것임.

□ 보내는 곳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석학원.

□ 붙임: 건의문 1부.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

청주대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1924년 교육입국(教育立國)의 창학정신으로 설립한 청주대학교는 교육구국(教育救國)을 실천했고,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주를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만든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공 자산 중에 하나이며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청주대학교가 전국대학기준 6위, 지방대 기준 1위 수준인 3,000여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학생을 위해 투자한 등록금 즉, 교육비 환원율은 전국 4년제 사립대 161곳 가운데 158위로 최하위이며, 장학금 지급률은 128위 등 극히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으로 구성된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년간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김윤배총장에게 이 사태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예고하는 등, 혼란에 빠져있는 학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윤배총장과 학내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미 지역 사회에도 큰 파장을 끼치고 있어 충청북도의회는 이를 심각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충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청주대학교 학내 사태 문제해결과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김윤배총장은 대학의 책임자로서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동시에 학생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학교를 정상화시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부는 청주대학교 학내 사태의 원인과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김윤배총장 사퇴문제로 야기된 학교운영의 공백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